

음악 만들기 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에 미치는 효과 및 경험적 의미*

Effects and Experiential Significance of Music Making Classes (or Lessons) on the Creative Compet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윤지영**

Jiyoung Yoon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음악교육 교과목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의 음악 만들기 수업이 창의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예비유아교사의 음악적 경험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G지역의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음악 만들기 수업을 진행한 후, 혼합연구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음악 만들기 수업은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만들기 경험은 '낯설음 마주하기', '도전하며 소통하기', '성장하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적 음악경험이 예비유아교사의 음악적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예비유아교사교육과정의 기초자료로서 시사점을 가진다.

주제어: 예비유아교사, 음악 만들기, 창의역량, 유아음악교육, 경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the impact of music-making lessons on the creative compet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o investigate their musical experiences. For this purpose, a music-making activity was conducted with 19 student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a university in the G region, and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a mixed methods research approac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usic-making lessons had a substantial impact on the creative compet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econd,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s in music-making were categorized as 'Facing Unfamiliarity,' 'Challenging and Communication,' and 'Growing Up.'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creative music experienc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musical experience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erving as foundational data for the academic curriculum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Key words: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music making, creative competence,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experience

* This research is funded by the Mid-level professor Financial Program at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2023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olmi@changwon.ac.kr

Associate Professor,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0 Changwondaehak-ro Uichang-gu, Changwon, Gyeongnam, Korea

I. 서론

미래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교육은 변화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역량 기반 교육을 적용하고 있다(Park, 2020).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논의들은 특정 교과나 학문분야의 지식을 넘어 범교과적 역량인 핵심역량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Lee, 2022). 교육 분야에서의 핵심역량은 OECD의 DeSeCo프로젝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무 상황에서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대학교육 영역에서의 핵심역량은 학과 및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동기를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능력을 말하며(Pack, 2020; Lee, 2022), 삶의 다양한 맥락에서 전이될 수 있는 지식의 생성과 창출에 초점을 둔다(Park, 2020).

특히 4차산업과 관련하여 창의성과 관련된 역량은 대학의 주요 핵심 및 자율 지표로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대학들이 창의성,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의인성, 창의역량 등 창의 관련 역량을 핵심역량 또는 핵심지표로 제시하고 있다(Lee, 2022). OECD의 Education 2030에서도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범주를 제시하고 혁신적 역량 중 하나인 창의성을 그 하위 요소로서 강조하고 있으며(Seol, 2020), 대다수의 연구에서도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으로 창의역량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Park, 2020; Song, 2021). 즉 창의역량은 어떠한 특정 영역이 아닌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핵심적인 능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창의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창의 역량의 구성요소로 Yang과 Chung(2015)은 사고력과 문제처리능력으로 언급하였으며, Kim(2019)은 창의적 사고 역량과 문제해결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Park과 Song(2016), Park(2020)은 창의역량을 창의적 사고역량과 지식정보활용 역량으로 제시한 바 있다. 창의적 사고 역량, 문제해결 역량, 지식정보활용 역량 등 창의역량 함양에 초점을 둔 교육은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여 재구성한 교육내용을 학습자 참여형 교수방법으로 운영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Park, 2020). 따라서 대학교육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이 수반되는 교과목의 운영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예비교사의 교육영역에서도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Park, 2020)되기에 이와 관련된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따라 최근 들어 예비교사의 창의역량과 관련하여 인식을 알아보거나(Koh, 2020) 창의 교육 핵심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한 연구(Shin, Huang, & Kim, 2021), 창의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지도안 작성 및 수업의 효과성을 밝힌 연구(Kim, 2019; Park, 2020) 등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초·중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역을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창의역량과 관련이 깊은 교과목으로 음악 교과목이 언급되고 있다. 음악 교과목에서 경험하는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감상하기, 음악 만들기 등의 다양한 음악활동 유형을 통해 학습자들은 함께 노래 부르며 연주하면서 소통하고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창의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Park, & Yang, 2016). 다양한 음악활동 유형 중 특히 음악 만들기 활동은 창의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활동으로 언급되고 있기에 (Park, & Yang, 2016; Song, 2021; Chung, 2019), 이와 관련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음악 만들기’ 활동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음악의 개념, 구조, 형식 등을 경험하고 조직하여 자신의 음악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활동을 의미 한다(Seog et al., 2006; Yim, Jang, & Ham, 2004). 음악 만들기 활동은 ‘작곡(composition)’과 ‘즉흥연주(improvisation)’, ‘이야기음악 만들기(making story music)’로 구분되며, 수업의 실제는 리듬 만들기, 가락 만들기, 형식에 따른 가락 만들기, 여러 가지 음악 만들기의 내용으로 구성된다(Seung et al., 2013). 즉 ‘작곡’은 음악의 구성요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고자 하는 악곡을 잘 조직하여 이를 악보의 형태로 구현하는 것으로 자신이 생각한 음악을 악보로 표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즉흥연주’는 어렵게 느껴지는 창작활동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이 상상하는 음악을 간단한 리듬이나 선율로 즉흥적으로 만들어 표현하는 방법이다(Song, 2021). ‘이야기 음악 만들기’는 즉흥연주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이야기를 활용하여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음악으로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음악 만들기 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켜주는 적극적인 음악활동이라 할 수 있다(Park, 2017).

이와 같은 음악 만들기 활동은 음악을 구성하는 음색, 리듬, 가락, 화성, 셈여림, 빠르기, 형식 등의 요소들을 창작의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응용함으로써 창의력과 표현력을 발휘(Seog, 2001)하게 되므로 음악수업에서 학습자에게 음악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이 지닌 음악적 능력을 발휘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의 제공은 중요하다. 음악 만들기 활동은 음악적 지식 및 기능의 습득뿐만 아니라 음악적 아이디어에 대한 능동적 적용 및 표현, 창의적 잠재성의 발견 등 교육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으므로(Chung, 2019), 음악적 사고의 창의적인 발현 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음악 만들기 활동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도전적인 영역이라는 인식으로(Choi, 2012) 교육 현장에서 소홀히 다루어질 뿐만 아니라 가장 적게 다루어지는 활동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Hong, 2012). 음악 만들기 수업에 있어 교사가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음악 만들기 활동에 대한 교사의 효과적인 실행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음악 만들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음악 만들기 수업 모형을 개발한 연구 (Park, & Yang, 2016; Yoon, 2020), 음악 만들기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천에 대한 연구(Song, 2021; Chung, 2019), 음악 만들기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Park, 2017; Shin, 2021)가 이루어져왔으며 대부분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즉 유아교사 및 예비교사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필요함을 시사한다.

음악 만들기 활동과 관련하여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였으며,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림책을 활용하여 음악동화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Yoon, 2017)와 피아노양상을 활용한 창의적 음악극 지도 방안에 대해 제시한 연구 (Park, 2021)만이 수행되었다. 이에 추후 유아교육현장에서 창의적 음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아교사 및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음악 만들기 활동과 관련된 후속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음악교육’ 교과목에 음악 만들기 수업을 적용한 수업설계를 바탕으로 팀별 창작 활동을 실시한 후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음악 만들기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적 경험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예비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창의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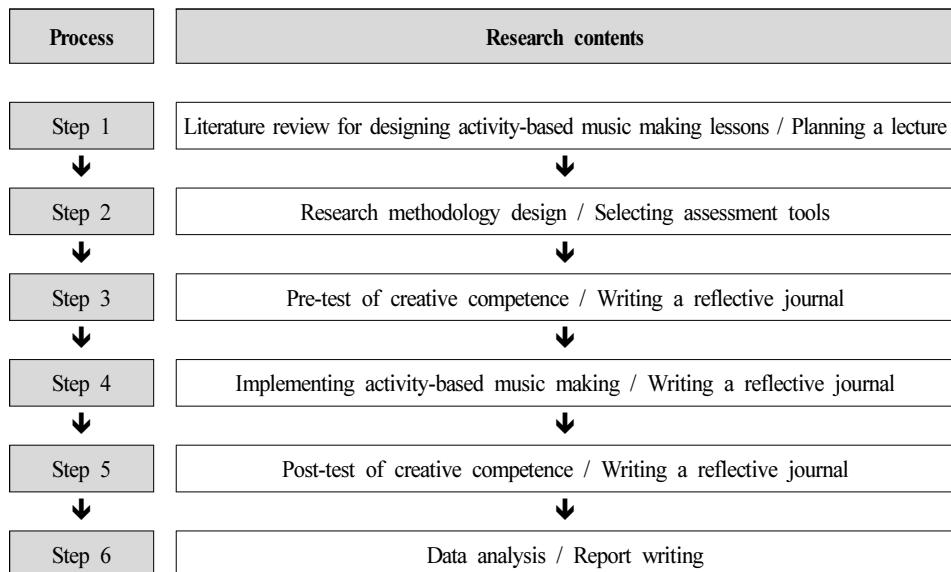
연구문제 1. 음악 만들기 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음악 만들기 수업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는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내용 및 절차

본 연구는 음악 만들기 활동을 유아음악교육 수업에 적용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활동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 효과를 분석하고 음악 만들기 활동의 경험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Figure 1]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Figure 1] Research contents and process

음악 만들기 활동기반 유아음악교육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 음악의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 특강(3회)을 진행하여 악곡의 구성 요소 및 창작과정에 대한 이해를 돋고자 하였다. 유아음악교육 강좌는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총 15주로 구성되었으나 음악 만들기 활동은 그 중 10주로 설계되었으며 팀별 프로젝트 수행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였다. 주차별 강의주제와 내용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Class topic and contents

Week	Class contents	Teaching methods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ientation • Understanding music making classes • Pre-test and reflection journal writing 1 	Teacher-centered learning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standing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usical concepts • Rhythm, melody, harmony, dynamics, musical form 	Presentation, discussion, workshop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thod of teaching to early childhood • Orff, Dalcroze, Kodaly, Gordon • Reflection journal writing 2 	

<Table 1> Continued

Week	Class contents	Teaching methods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singing child - Making music 1 • Selection of picture books for making music • Composer's lecture: The structure of music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moving child - Making music 2 • Composer's lecture: Utilizing elements of music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playing child - Making music 3 • Composer's lecture: Writing lyrics and composing a theme song 	Presentation, discussion, team-based cooperative learning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listening child - Making music 4 • Writing lyrics and composing a theme song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creating child - Making music 5 • Writing lyrics and composing a theme song • Reflection journal writing 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mmative evaluation • Play music and evaluation • Post-test and reflection journal writing 	Performance, evaluation
11	- Understanding the curriculum	
12~14	- Planning and implementing of simulated instruction	Presentation, discussion
15	- Evaluation	Evaluation

주차별 강의내용을 살펴보면, 1주차에는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4주차에는 유아음악교육관련 연구동향, 음악교육내용(음악적 개념 및 요소), 음악교수법(Orff, Dalcroze, Kodaly, Gordon)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발표 및 토의, 워크숍의 형태로 수업을 운영하였다. 5~9주차에는 매주 노래 부르기, 신체 표현, 악기연주, 음악감상, 음악 만들기 활동과 관련된 기초이론, 유아의 발달 및 실제를 학습하는 시간(1시간 30분)과 팀별로 음악 만들기 활동을 하는 시간(1시간 30분)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이때 음악 만들기 수업은 팀별로 그림책을 선정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그림책의 주제곡을 작사, 작곡하고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였으며, 효과음은 즉 흥연주를 통해 정하는 등 그림책의 내용을 음악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구성하였다. 10주차에는 유아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서 성과물을 공유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11~14주차에는 음악 모의수업을 진행하였으며 15주차에는 총괄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음악 만들기 활동기반 유아음악교육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남 C시에 위치한 4년제 C대학교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 18명이다. 유아음악교육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1학년 때 기악의 기초 및 반주법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자는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성격, 과정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3년 9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주동안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음악 만들기 활동을 통해 창의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양적으로 측정하고 음악 만들기 활동 참여 경험에 대한 변화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혼합연구(mixed-method design)로 설계되었다. 혼합연구방법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통합하여 연구함으로서 경험적이고 실용적인 문제해결에 풍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기에(Creswell & Plano Clark, 2011),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창의역량의 변화뿐만 아니라 음악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면서 경험하는 학습자의 변화를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이해하고자 혼합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양적연구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Park과 Song(2016)이 개발한 대학 특성화에 따른 핵심역량 진단도구 중 창의역량에 해당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과 지식정보활용 역량에 대한 문항을 Park(2020)이 예비교사의 창의역량 측정 도구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창의적 사고 역량 9문항, 지식정보활용 역량 6문항으로 총 2개의 하위 영역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창의역량 검사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905이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단일집단으로 구성하여 음악 만들기 수업에 참여한 전후의 창의역량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Table 2> Reliability of creative competence tools

Type	Item	Cronbach's α
Creative thinking competence	1 ~ 9	.809
Competence to use knowledge information	10 ~ 15	.899
Total	1 ~15	.905

2) 질적연구

본 연구에서의 질적연구는 음악 만들기 수업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가 개별로 작성한 성찰일지와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평가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반성하며 작성한 성찰일지를 수업 과정 중 3번(1, 4, 9주차)에 걸쳐 작성하였으며, 평가지는 음악 만들기 수업의 마지막 주차인 10주차에 작성하였다. 평가지의 내용은 관련 선행연구(Chung, 2019)에 기초하여 음악 만들기 수업에 대한 인식 및 실행, 수업의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음악 만들기 수업에 대한 인식: ①음악 만들기의 교육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음악 만들기 수업에 대한 실행: ①음악 만들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②음악 만들기 수업 과정 중 나에게 변화된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음악 만들기 수업의 조건: ①음악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함께 작성하여 주십시오. ②음악 만들기 수업을 위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Elo & Kyngäs(2008)가 제시한 준비, 조직화, 보고 단계에 따라 실시하였다(Lee & Yoon, 2020). 준비 단계에서는 자료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코딩하는 작업을 일차적으로 수행하였고, 조직화 단계에서는 코딩된 단어를 분석하며 주제를 형성하였고, 보고 단계에서는 도출된 하위범주와 주제를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주제는 ‘낯설음과 마주하기’, ‘도전하며 소통하기’, ‘성장하기’의 3개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범주는 창작에 대한 두려움, 음악적 지식의 부족함, 자신감의 회복, 공감과 소통, 앎으로 채워가기, 또 다른 나의 발견의 6개로 나타났다(예: 음악적 능력의 재발견, 음악으로 즐기기, 음악교수활동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의 코드는 ‘또 다른 나의

발견' 하위범주로 범주화 됨). 분석과정에서 자료의 명확한 의미 파악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가 분석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member checking)를 거쳤으며, 유아교육전문가 2인과 음악교육전문가 1인이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음악 만들기 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에 미치는 영향

음악 만들기 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음악 만들기 수업을 하기 전 창의역량 전체 평균점수는 3.89($SD=.55$)에서 음악 만들기 수업을 하고난 이후 창의역량 전체 평균점수가 4.58($SD=.49$)로 향상되었다. 창의역량의 하위영역 별로 살펴보면 창의적 사고 역량은 3.86($SD=.51$)에서 4.55($SD=.51$)로, 지식정보활용 역량은 3.92($SD=.66$)에서 4.62($SD=.51$)로 향상되었다.

<Table 3> Creative compet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N=18$)

Type	Pre-test $M(SD)$	Post-test $M(SD)$	t
Creative thinking competence	3.86(.51)	4.55(.51)	-4.99***
Competence to use knowledge information	3.92(.66)	4.62(.51)	-4.50***
Total	3.89(.55)	4.58(.49)	-5.09***

*** $p<.001$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 향상정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 전체 점수는 음악 만들기 수업을 실시하기 전보다 후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t=-4.99, p<.001$), 하위영역별로는 창의적 사고 역량($t=-4.50, p<.001$), 지식정보활용 역량($t=-5.09, p<.001$)이 각각 음악 만들기 수업을 하기 전보다 후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2. 음악 만들기 수업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경험

음악 만들기 수업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경험적 의미를 분석한 결과 음악 만들기의

경험은 ‘낯설음과 마주하기’, ‘도전하며 소통하기’, ‘성장하기’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창작에 대한 두려움, 음악적 지식의 부족함으로 음악 만들기의 낯설음을 마주하고 있었으며, 얇으로 채워가며 협업을 통한 공감과 소통을 통해 도전하며 발전하는 자신을 인식하였다. 또한 음악을 즐기며, 완성된 음악에 대한 뿌듯함으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개인적 성장을 경험하였다.

1) 낯설음과 마주하기

(1) 창작에 대한 두려움

예비유아교사들은 그림책을 활용하여 음악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학습한 음악적 지식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이는 음악을 만드는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처음 시도하는 음악 창작의 경험은 예비유아교사들에게 낯설음이라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음악 만들기 수업에 참여하면서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경험하였으며, 음악 창작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수업 초반에는 어려움, 두려움 등을 언급하였다.

창의적이고 음악적 능력을 요구하는 음악 만들기는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 낯설고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이OO, 1차 성찰보고서)

팀원들과 함께 창작과 관련된 작업을 할때 음악적 수준과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이를 조율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걱정도 많이 되고 처음 음악을 만들어 본다는 것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김OO, 2차 성찰보고서)

(2) 음악적 지식의 부족함

예비유아교사들은 음악 만들기에 대한 어려움이나 두려움의 원인을 음악적 지식의 부족함이라 여기고 있었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음악 만들기 수업을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음악 창작의 경험 부족과 함께 음악 개념의 이해 또는 음악 실기의 개인차 등을 들 수 있다(Chung, 2019). 실제로 예비유아교사들의 음악적 능력 및 기술은 개인 편차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음악 만들기의 어려움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음악적 지식이 많지 않아서인지 그림책의 내용과 연결지어 어떤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면 좋을지 음악적 아이디어를 내는데 어려움과 부담감이 느껴졌다. (이OO, 2차 성찰보고서)

평소 노래를 만드는 경험과 음악적 지식이 부족해서인지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하는 것이 어려웠다. (박OO, 2차 성찰보고서)

2) 도전하며 소통하기

(1) 자신감의 회복

예비유아교사들에게 낯설음, 어려움,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음악 만들기 수업은 점차 수업이 확장되면서 즐거움으로 나타났다. 특히 팀별로 음악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으며, 팀원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도전들은 음악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음악에 대한 자신감의 회복은 과제 수행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예비유아교사들이 음악 만들기 활동을 재미와 즐거움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음악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변화된 점은 음악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이다. 친구들과 함께 소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도 배운 것 같다. (이OO, 평가지)

시간이 지날수록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음악 만들기 활동이 익숙해지면서,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들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과정이 새로웠고 수업시간도 즐거웠다. (정OO, 3차 성찰보고서)

(2) 공감과 소통

예비유아교사들은 팀별 음악 만들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악곡의 구조 및 음악의 요소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팀별 논의를 통해 보완하면서 노래와 효과음을 완성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음악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의미 있는 음악적 표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문제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은 나와 생각이 다른 팀원들과 음악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협력적 의사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더 나아가 예비유아교사들은 공감과 소통을 통한 음악 만들기 활동으로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음악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을 배려하고 인정해주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다함께 만든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 부르는 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가는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로 단합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박OO, 평가지)

팀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엉망이라고 생각했었던 음악들이 점차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도 쌓을 수 있었다.(안OO, 평가지)

음악 만들기를 할 때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친구와 계속 의견을 주고 받으며 어떤 의견이 가장 좋을지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원하던 음악을 만들 수 있었기에 이러한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조OO, 평가지)

3) 성장하기

(1) 얇으로 채워가기

예비유아교사들은 음악 만들기 수업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졌으며 성공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며 이를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수업중 이루어진 3번의 전문가 특강을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은 악곡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창작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교수자 및 학습자 간 피드백을 반영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음악 만들기 수업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이 만든 주제곡의 예시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나는 원래 음악을 즐기지 않고 정적이고 조용한 활동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이번에 음악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나의 부족한 음악 실력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박OO, 2차 성찰보고서)

음악 만들기 활동을 처음 시도해보았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내가봐도 신기할 정도로 음악적인 표현이나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보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OO, 2차 성찰보고서)

음악 만들기 수업 중 이루어진 특강을 통해 노래의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강사님과 교수님, 친구들의 피드백을 통해 우리가 만든 노래는 더 다듬어졌고 창작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박OO, 평가지)

<Table 4> Examples of theme songs created b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ype	Item
 <p>샘과 데이브가 땅을 팔아요</p>	<p>Sam and Dave - - dig - the ground What - shall we find</p> <p>샘과 데이브가 땅을 팔아요 보물을 찾아보자 Sam and Dave - - dig - the ground Let's - - find the treasure</p>
 <p>내 마음은 내 마음은</p>	<p>C G C G</p> <p>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데 - 아 름 은 This - isn't - it This - isn't - it what's - in my heart.</p> <p>F G C G C</p> <p>한사도하고 놀고도 살고 네 말에 표현해 I want to say hello and - have - fun How can I - express how I feel</p> <p>G C G G</p> <p>못고려워서 말도 통하지 않아 I can't even talk because I'm shy It's not like this</p> <p>C F G C G C</p> <p>용기내보자 난 할 수 있어 마음의 소리 말해 Let's - be brave I - can do it Let's tell - the sound - of my heart</p>

(2) 또다른 나의 발견

예비유아교사들은 음악 만들기 경험을 통해 음악을 즐기는 자신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예비교사로서 음악교수역량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음악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특별한 사람만이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누구나 음악을 만들고 즐길 수 있으며, 그림책은 음악적 상상력과 표현력을 풍부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유아들과도 교육현장에서 음악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은 음악 만들기 활동을 통해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감상하기 등 다양한 음악활동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이후의 음악교수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인식하고 있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의 성공적인 음악적 경험은 다양한 도전에 대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렇듯 음악 만들기 수업은 예비유아교사들의 잠재되어있는 음악적 능력과 음악 교수능력을 재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음악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고 유아들과도 함께 그림책

을 활용하여 효과음을 다양하게 탐색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도 생기게 되었다.(김OO, 평가지)

음악을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은 음악을 즐기는 다양한 방식을 알게되는 기회였다. 다양한 악기에 따라 표현을 다르게 해보고, 악보도 만들어보면서 나에게도 음악적인 소양이 있음을 알게되었다. (안OO, 평가지)

음악을 만들어보고 그 노래를 악기로 연주하면서 유아들과 재미있게 통합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림책을 활용하여 유아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고 연주하면서 음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나중에 모의수업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유아들과도 함께 활동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박OO, 평가지)

창작의 고통은 어마어마했지만, 친구들과 음악을 완성하고 나서는 재미와 보람을 느꼈다. 같은 환경 속에서 다양한 작품의 양상을 볼 수 있었으며, 다른 팀보다 더 잘 만들고 싶은 욕심도 생기게 되었다. (김OO, 3차 성찰보고서)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음악교육 교과목에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음악 만들기 수업을 실행한 후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학습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만들기 활동을 적용한 유아음악교육수업은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 전체 점수 뿐 아니라 하위요인인 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정보활용 역량 모두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이는 음악 만들기 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 신장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예비유아교사가 학습한 음악적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즐기는 과정은 창의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가 교사의 창의성에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힌 Lim(202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본 교과목은 예비유아교사들이 음악 만들기 수업을 그림책의 스토리에 기반하여 팀별 협동학습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 되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그림책 내용에 적절한 주제곡을 만들고, 효과음을 연주하는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음악적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발전시킴으로서 과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팀별 성과물을

발표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과정은 예비유아교사들의 창의적인 사고 능력과 지식정보활용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창의적 사고의 기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수업은 외현적이고 의도적이며 직접적이어야 하므로(Kim, 2007), 창의적인 사고의 목표와 교과의 목표는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Jeong, 2018). 대부분의 대학에서 창의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바 실제로 창의적인 사고와 관련된 목표와 활동들이 수업시간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해 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 개발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습자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문제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둔 교과목의 개발과 운영은 필수적일 것이다.

둘째, 음악 만들기 수업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의 경험은 ‘낯설음과 마주하기’, ‘도전하며 소통하기’, ‘성장하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들은 그림책의 내용에 적절한 새로운 가락을 만들거나 가사를 만드는 등 창작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으며, 그 과정에서 음악적인 지식의 부족함으로 음악 만들기 활동에 대한 낯설음을 마주하였다. 그러나 예비유아교사들은 팀기반 협동학습을 통해 팀원간의 공감과 소통을 경험하며 점차 도전하며 발전하는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예비유아교사들이 음악을 온몸으로 느끼며 즐기는 또다른 나를 재발견하는 개인적 성장의 기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음악 만들기 수업에서 자신의 실행과 실천의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며 이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음악 만들기 수업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Chung(2019)의 연구와 음악 수업 중 작곡의 경험은 학습자들에게 음악적 지식이나 개념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인 활동이며 이를 통해 스스로 작곡한 음악에 대하여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등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Song(2021)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음악 만들기 수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기초적인 음악적 지식의 부재를 이야기하였다. 실제 음악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예비유아교사들의 음악 선행지식의 수준에 따라 개별적 편차가 존재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팀기반 협동학습으로 진행하였다. 음악 만들기 수업은 모둠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감상하기 등 통합적 음악활동으로 함께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음악수업으로서 의미가 있기에(Song, 2021), 탐색, 모방, 창작의 과정으로 그림책의 스토리와 연계된 주제곡을 작곡하여 연주하는 수업은 팀원들간의 상호 피드백을 통해 결과물을 스스로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음악 만들기 결과물은 질적으로 정교화되어갔다.

예비유아교사들은 팀원들과 함께 한 음악 만들기 활동을 의미 있는 창작의 과정이라 여기고 있었으며, 수업 중 창작과 관련하여 명확한 안내와 이해는 활동을 진행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예비유아교사들은 음악 만들기의 결과물 도출 뿐 아니라 그 과정자체를 즐기며 이는 성공적인 과제수행의 원동력이 되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음악 만들기 수업 중 다양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문제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긍정적으로 해결하게 되었으며 창의적인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의 성공적인 과제수행은 부담감으로 자리잡고 있던 음악 만들기 활동에 대한 성취감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음악 만들기 수업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진 학습자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과정은 핵심적인 학습의 요인이 되므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법의 적용 및 교과목의 운영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예비유아교사들의 음악적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협동학습에 기반한 음악관련 교과목의 운영은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음악 만들기 수업은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에 효과적이며, 이러한 창의적 음악 수업은 예비유아교사의 음악적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음악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시사점을 가진다. 따라서 교원양성기관에서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음악교과목 뿐만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교과목에서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력과 관련된 교육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의 유아음악교육 교과목에서 진행되었으며,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남 C시의 예비유아교사 단일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 대상을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연구 설계를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만들기 수업이 창의역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그 외 다른 변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다양한 변인과 관련하여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음악교육활동으로서 창작과 관련된 수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예비유아교사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현장의 유아 및 유아교사 대상의 음악 만들기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Choi, Y. K. (2012). The analysis of PCK cases in elementary music creation class.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0(3), 199-226.
- Chung, J. W. (2019). Qualitative inquiry on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and practice

- of classroom instruction for music making.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4(1), 111-143.
- Creswell, J. W., & Plano Clark, V. L. (2011). Choosing a mixed methods design.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2, 53-106.
- Elo, S., & Kyngäs, H. (2008).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1), 107-115.
- Hong, S. Y. (2012). Creativity in music education: An investiga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derstanding: Concentrated on Gwangju and Chonnam provinces in Korea. *Journal of Ewha Music Research Institute*, 16(2), 1-21.
- Jeong, M. S. (2018). The effect of creative competency courses on the creative problem solving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2), 601-618.
- Kim, E. J. (2019). The effect of convergence lesson plan and teaching demonstration for enhancing creative competency of the pre-service teache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3), 466-474.
- Kim, J. W. (2019).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ssessment tool for collegiate core competencies: Focused on K university. Doctoral diss., Korea National University.
- Kim, Y. C. (2007). *The theory and development of creativity*. Seoul: Gyoyuggwahagsa.
- Koh, H. S. (2020). A study on early childhood teachers creative competencies perceived b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ith a focus on metaphor analysi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9), 825-850.
- Lee, E. J., & Yoon, J. Y. (2020). Exploring the effects and experiential significance of technology-based capstone design class on technology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 (TPACK)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4), 525-546.
- Lee, H. B. (2022). Explore network structure of creative competence.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16(3), 55-74.
- Lim, Y. J. (2021). The effect of culture competence and art activities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creativ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5), 3041-3056.
- Paek, S. S. (2020).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core competency-based liberal art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4(3), 11-23.
- Park, I. S. (2020). The effects of project based cooperative learning(PBCL) on creative

- competence of pre-service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 307-327.
- Park, J. H., & Yang, I. S. (2016). A instructional model for music making activities applying project learning.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5(2), 149-168.
- Park, J. M. (2017). A study on teaching methods for making story music using Korean children song: Focused on the improvisation activities.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2(1), 61-80.
- Park, J. W. (2021). A study on creative music drama teaching plans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using piano ensemble: Focusing on 'Peter & The Wolf'.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5(1), 117-129.
- Park, S. J., & Song, Y. S. (2016). A study on development of a core competencies tool of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 to specialized university.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9(2), 79-107.
- Seog, M. J. (2001). The effects of composing in a music class setting.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0, 233-255.
- Seog, M. J., Kwon, D. W., Choi, E. S., & Ham, H. J. (2006). A study on subjects of concentrations for music teacher program in the universities of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0, 77-100.
- Seol, Y. K. (2020). Transformational competency-based education according to future-oriented educational design plan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4(3), 25-38.
- Seung Y. H., Min, K. H., Yang, J. M., & Chung, J. W. (2013). *Music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Seoul: Hakjisa.
- Shin, E. J. (2021). Changing lyrics centered on musical concepts as a music-making activity in elementary school.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1), 51-79.
- Shin, T. S., Huang, X., & Kim, J. E. (202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ssessment of pre-service teachers' competency in creative teach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33(4), 735-754.
- Song, M. K. (2021). High school music teachers' perception of composition activities in music classrooms: A study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ienced teachers work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6(1), 113-135.
- Yang, Y. K. & Chung, W. H. (2015).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liberal arts curriculum, based on the NCS professional basic ability and the industry demand for liberal arts educa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D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9(2), 35-65.

Yim, M. K., Jang, K. B., & Ham, H. J. (2004). *Theory and practice of music education*. Seoul: Yejong.

Yoon, J. Y. (2017). The influence of the musical fairytale creation program upon the formation of pedagogical knowledge of music and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concept map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4), 105-128.

Yoon, S. W. (2020).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music making lessons in the music subject.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42, 131-149.